

# '96년 국내경제전망

- 한국은행 -



96년중 우리 경제는 94년부터 계속된 신증설투자의 일단락, 엔화의 약세전환 및 세계교역 신장세의 둔화 등으로 그동안 성장을 주도해 왔던 설비투자와 수출신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성장률이 7.4% 정도로 낮아지겠음. 그러나 잠재성장을 수준인 7%대 성장을 유지하여 경기의 연속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경상수지는 수입신장세의 둔화로 무역수지가 개선되어 금년보다 적자 폭이 축소된 64억달러 내외의 적자가 예상되며, 소비자물가는 공공요금 인상, 총선실시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금년보다 다소 높은 4.8% 상승할 것으로 보임.

## 1. 95년 경제동향

- 95년중에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높은 신장세를 보인 가운데 소비, 건설투자도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전년(8.4%)보다 높은 9.3% 정도에 이를 전망
-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난 데다 무역의 및 이전수지도 악화되어 적자폭이 전년(45억달러)보다 크게 확대된 85억달러 정도 예상.
- 소비자물가는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서비스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으나, 농산물가격이 안정된 데다 공업제품가격도 경쟁심화 등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어 전년(6.2%)보다 낮은 4.6%(연평균 기준)상승 전망
- M2의 연평균증가율은 목표범위(12~16%)이내인 15.7%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95년 경제동향

(전년대비,%)

	1993	1994	1995
경제성장률	5.8	8.4	9.3
경상수지(억달러)	3.8	-45.3	-85.0
소비자물가 상승률 <sup>1)</sup>	4.8	6.2	4.6
실업률	2.8	2.4	2.0
M2 증가율 <sup>2)</sup>	18.6	15.6	15.7

주 : 1) 연평균기준 2) 연평잔기준

## 2. 96년 경제전망

### 가. 대내외 경제여건

#### (1) 해외경제여건

- 96년중 세계경제는 선진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개도국경제의 고성장 지속 및 동구권경제의 호전에 힘입어 금년보다 높은 4%내외 성장 전망
- 세계교역신장률은 경기진정국면에 들어선 미국의

수출입물량 증가세 둔화로 금년보다 낮아지겠지만, 개도국의 고성장 및 역내교역증가 등에 힘입어 6%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 지속 예상

- 엔화의 대미달러환율은 연중 소폭의 약세를 보이다가 연말경에는 달러당 100엔 수준에서 등락 예상.\*

\* 상반기중에는 대체로 약세기조가 이어지겠으나 하반기 들어 일본의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 상승, 미국의 대규모 쌍둥이 적자 지속 등 기초경제여건을 반영하여 강세로 반전 예상

### 주요 해외경제여건

(전년대비,%)

	1994	1995e	1996e
세계경제성장률	3.6	3.8	4.1
선진국	3.1	2.5	2.4
개도국	6.2	6.1	6.2
체제 전환국	-9.5	-2.1	3.4
세계교역신장률	8.7	8.0	6.6
유로달러금리(3개월간기) <sup>1)</sup>	6.5	5.7	5.3
엔화환율(¥/U\$) <sup>1)</sup>	99.8	102.0	100.0
원유가격(U\$/bbl) <sup>2)</sup>	15.5	16.7	15.5
기타원자재가격상승률	10.8	1.8	-0.2

주 : 1) 기말기준 2) Brent, Dubai, Alaska North Slope由의 평균가격기준

○96년중 국제금리는 금년에 이어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나, 하반기경에는 경기회복세가 진전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 및 독일의 금리를 중심으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국제원유가격은 非OPEC 산유국의 생산증가 등에 따라 하락세를 보일 전망
- 기타원자재가격은 선진국의 안정성장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년 수준 유지

(2) 국내경제여건

- 고율성장에 따른 초과수요압력, 총선을 앞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을 위한 공공요금 현실화 등 물가상승요인 잠재
- 그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토지, 주택 등 부동산가격도 총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 본격화 등 불안요인 잠재
- 경기하강과정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경공업부문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
- 자본자유화 확대로 외자유입이 크게 늘어나 통화, 금리, 환율 등 거시정책변수의 운영여건이 어려워질 가능성
- 금융면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으로 금융시장간 자금이동 가능성 잠재

나. 국내경제전망

- 96년중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7.4% 정도로 낮아져 잠재성장률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상수지는 64억달러 내외의 적자가 예상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8%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

(1) 경제성장

- 96년중 우리 경제는 그동안 성장을 주도해 왔던

경제성장 전망

(전년대비,%)

	1994	1995	1996
국내총생산(GDP)	8.4<100.0>	9.3<100.0>	7.4<100.0>
총소비 (민간)	7.0<53.7>	7.5<51.7>	7.0<59.2>
고정투자 설비	23.3<38.2>	17.0<28.7>	7.2<16.2>
건설	4.6<12.2>	8.9<20.7>	7.7<22.2>
상품수출	14.6<48.7>	26.6<85.2>	14.1<65.3>
상품수입	22.0<76.7>	23.2<82.6>	14.4<72.1>

주 : 1) ( )내는 기여율(%)

설비투자와 수출의 신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성장률이 7.4%내외로 낮아질 전망

- 성장의 내용면에서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내수부문이 성장을 주도
- 수외부문별로 보면,
- 민간소비는 신장세가 점차 둔화되기는 하겠으나,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구매력 증대, 경기후행적인 특성 등이 작용하여 7.5%내외의 증가율 유지 전망.
- 설비투자는 94년부터 계속된 신·증설투자의 일관적, 엔화의 약세 전환, 그리고 경기의 하강국면 진입 예상 등으로 증가율이 7.2%내외로 낮아질 전망.
- 건설투자는 미분양주택 적체, 설비투자 둔화에 따른 공장건설 위축 등으로 건물건설이 낮은 증가에 그치겠으나, 토목건설이 그동안 지연되었던 공공부문의 사회간접자본 건설확대 및 지역개발사업의 활기로 호조를 보여 전체적으로 7%대의 꾸준한 증가세 예상

(2) 국제수지

- 96년중 수출(통관기준)은 세계교역신장세의 둔화, 엔화 약세, 그리고 95년 급신장에 대한 반사효과 등으로 증가율이 1.6% 정도로 둔화될 전망.
- 중화학공업제품은 전기·전자, 기계류, 화공품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 유지 예상.
- 수입(통관기준)은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전망 (통관기준)

(단위 :억달러)

	1994	1995	1996	증 감	
				1995	1996
수출	960.1 (16.8)	1,273 (32.6)	1,476 (15.9)	312.9 <100.0>	203 <100.0>
중화학공업제품	639.5 (22.0)	899 (40.6)	1,079 (20.0)	259.5 <82.9>	180 <88.7>
경공업제품	257.4 (6.9)	292 (13.4)	308 (5.5)	34.6 <11.1>	16 <7.9>

주 :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 )내는 기여율(%)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도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13%대의 증가에 머물 전망

- 자본재와 원자재는 둔화폭이 크겠으나, 소비재는 꾸준한 소비수요 증가와 수입자유화 확대 등으로 높은 신장세 지속 예상.

### 수입전망 (통관기준)

(단위 : 억달러)

	1994	1995	1996	증 감	
				1995	1996
수 입	1,023.5 (22.1)	1,369 (33.8)	1,551 (13.3)	345.5 <100.0>	182 <100.0>
원자재	509.8 (14.8)	682 (33.8)	782 (14.7)	172.2 <49.8>	100 <54.9>
자본재	404.3 (32.1)	548 (35.5)	595 (8.6)	143.7 <41.6>	47 <25.8>
소비재	109.4 (24.6)	139 (27.1)	174 (25.2)	29.6 <8.6>	35 <19.2>

주 :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 >내는 기여율(%)

- 96년중 경상수지는 수입신장세의 둔화로 무역수지가 개선되어 64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보일 전망
- 무역수지는 수출보다는 수입의 둔화폭이 더욱 커 적자폭이 30억 달러 내외로 축소될 전망.
- 그러나 무역외 및 이전수지는 운수관련경비 및 기술용역대가 지급과 대외 이자지급의 꾸준한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를 상회하는 34억 달러 내외의 적자 지속 예상

### 국제수지 전망

(단위 : 억달러)

	1994	1995	1996
경상수지	-45.3	-85.0	-64
무역수지	-31.5	-50.4	-30
수출 <sup>1)</sup>	936.8 (15.7)	1,246 (33.0)	1,440 (15.6)
수입 <sup>2)</sup>	968.2 (22.4)	1,297 (33.9)	1,470 (13.4)
무역외·이전	-13.9	-34.6	-34

주 : 1) 국제수지 기준, 2) (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3) 물가

- 96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원화 절상, 병행수입제 실시 등 하락요인이 있으나, 공공요금 인상, 그동안의 고율성장에 따른 초과수요압력의 현재화, 총선실시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
- 품목별로는 공업제품가격이 경쟁심화, 유통구조의 개선등으로 금년의 안정세를 유지하겠으나, 서비스가격은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

### 물가전망<sup>1)</sup>

(단위 : 억달러)

	1994	1995	1996
소비자물가	6.2	4.6	4.8
농축수산물	12.3	4.0	4.5
공업제품	3.0	2.6	2.8
서비스	6.5	6.7	7.1
생산자물가 (농림수산물)	2.8	5.0	3.2
(공산품)	12.1	4.7	4.8
	1.6	5.0	3.1

주 : 1) 연평균기준

- 생산자물가는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 등에 힘입어 공산품가격의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어 상승률이 32% 내외로 낮아질 전망.
- 한편 부동산가격의 경우 주택매매가격은 미분양주택 적체 등으로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겠으나, 토지가격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 본격화 등 다소의 불안요인 잠재

### (4) 고용

- 96년중 취업자수 증가율은 성장률 하락에 따라 1.9%내외로 낮아져 경제활동인구 증가율(2.0%)을 다소 밑돌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실업률은 2.2% 정도로 금년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

### 고용전망<sup>1)</sup>

(천명)

	1994	1995	1996
경제활동인구	20,236 (2.6)	20,759 (2.1)	21,180 (2.0)
취업자수	19,837 (3.0)	20,335 (2.5)	20,714 (1.9)
실업률(%)	2.4	2.0	2.2

주 : 1) (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

### 3. 정책대응방향

#### 가. 향후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

- 93년 1월 이후 장기간 확장세를 보여 온 국내 경기는 당분간 고원경기의 양상을 보이다가 96년에는 설비투자의 신장세가 둔화되고 수출증가율이 낮아지면서 하강국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그러나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서더라도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냄에 따라 하강속도는 상당히 완만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7%대의 성장을 유지하여 경기의 연착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경기의 연착륙과 함께 96년중에는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주로 경기하강에 따른 수입수요의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우리의 수입의존적 경제체질이 개선된 결과로 보기는 어려움.
- 특히 내년에는 무역의 및 이전수지 적자가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웃돌아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무역외수지 적자 확대는 국내기술수준 低位에 따른 기술용역대가의 지급 증대, 외채누증에 따른 대외이자지급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로서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음
- 한편 내년에는 성장의 기여도면에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내수면에서의 물

가상승압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 총선을 앞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금년보다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 잠재

- 96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48%)이 비록 예년에 비해서는 안정된 수준이라 볼 수 있으나 선진국은 물론 주요 경쟁상대국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 비추어 지속적인 안정화 노력이 필요

#### 나. 기본정책방향

- 내년중 우리 경제는 7%대의 성장을 유지하여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데다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대내외 불균형의 해소가 중요한 현안과제가 되고 있음.
- 물가안정기조의 정착 없이는 국제수지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96년의 물가오름세가 95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경우 선진국 수준의 물가안정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에는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내년도 거시경제정책은 물가상승률을 금년보다 더욱 낮출 수 있도록 통화·재정 등 제반 거시정책수단을 상호연계하여 안정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
- 통화증가율을 금년보다 낮추어 책정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불식함과 아울러 정책집행에 있어서도 통화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여 총수요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함.
- 재정지출의 절도 있는 관리 등 재정면에서의 경제안정화 노력을 강화
- 이 밖에 인력수급 원활화 및 임금안정, 소비의 건전화와 부동산 투기억제,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등 미시적 안정화 노력도 꾸준히 지속. ㉠

〈한은정보 '95.12월호〉